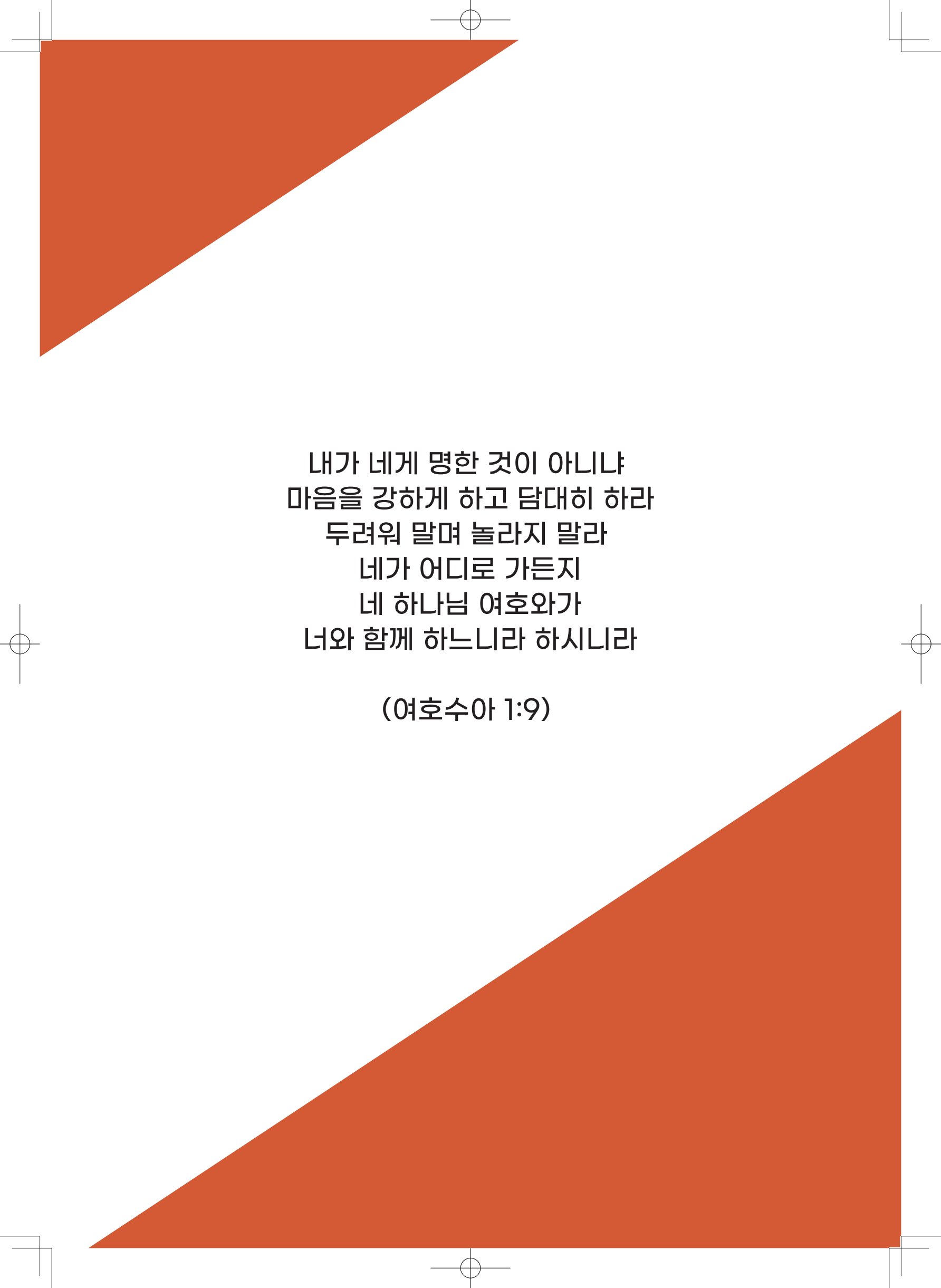


2022

하늘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정하민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JUNG HAMIN

2022.07.18

빛음을 마무리 하며..

빛음, 정말 귀중한 시간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소중한시간 이었습니다. 우리 4기 공동체가 예수님의 잘 빛어진 그릇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비록 형식적인 빛음은 끝이 나지만,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빛어져 나아가야 하고,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사람 한사람이 될수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4기 공동체와 저는 앞으로도 항상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차

- 사명 선언문
- 신앙에세이
- 정의 에세이
- 절제하는 삶을 위한 나의 원칙
- 성결 에세이
- 성결 서약문
- 정직 에세이
- 3p창의활동 계획서
- 나는 배웠다
- 빛음 2단계 소감문
- 평화 에세이



ABOUT ME

정하민

-2006.09.20 출생

-경남 김해시 거주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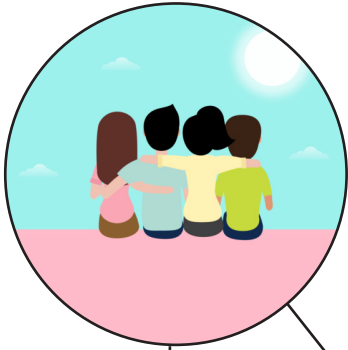
-드리미학교 4기생.

-드리미학교 에서의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것을 맹세하였음.

- 예수님의 사랑을 온땅에 전파하기위해 온힘을 다할것임.

- 무슨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함.

사명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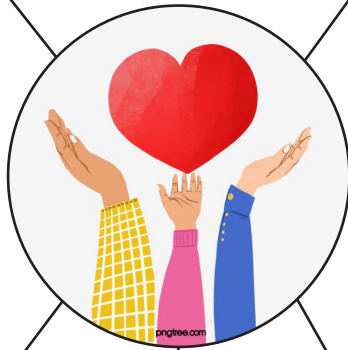
이웃이 되는 선교사

직접 열방땅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가정

한 가정의 일원으로써 선한영향력을 가족 일원들에게 끼치며,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된다.



본질적 사명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히 전해주시는 그 사랑을 온 땅과 민족과 영혼에게 전하여주는 삶을 산다.



기뻐하는 베이스스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배를 통해 섬기는 사람이 된다.



회복시키는 바리스타

크리스천 카페를 설립하여 육신에 지친 사람들에게 영과 육의 안식을 전해 주는 사람이 된다,

Action Plan

이웃이 되는 선교사

- 학생선교사로서 학교에서 선교의 기회가 있을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소 1년에 1회이상 선교를 나간다.
- 창의활동으로 터키어및 터키문화 공부를 졸업전까지 2학기 이상한다.
- 성경과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는 단체에 속한다.
- 매일 1분이상 영성일기 시간에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가정

- 매주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안에서 더욱 끈끈한 신앙공동체 가정이 된다.
- 가족구성원들과 매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보탬이 되는 가정이 된다.
-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한 가정의 일원으로써 가족을 뒷전으로 두지 않는다.

권면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 하루에 한번씩 이웃에게 칭찬을 하나씩 해준다.
- 아픔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주고 따스함으로 보듬어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준다.
- 매달 한권씩 선교에 관한 신앙도서를 한권씩 읽고 정리한다.

기뻐하는 베이시스트

- 매일 30분 이상 베이스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 시킨다.
- 드리미학교에서 예배팀을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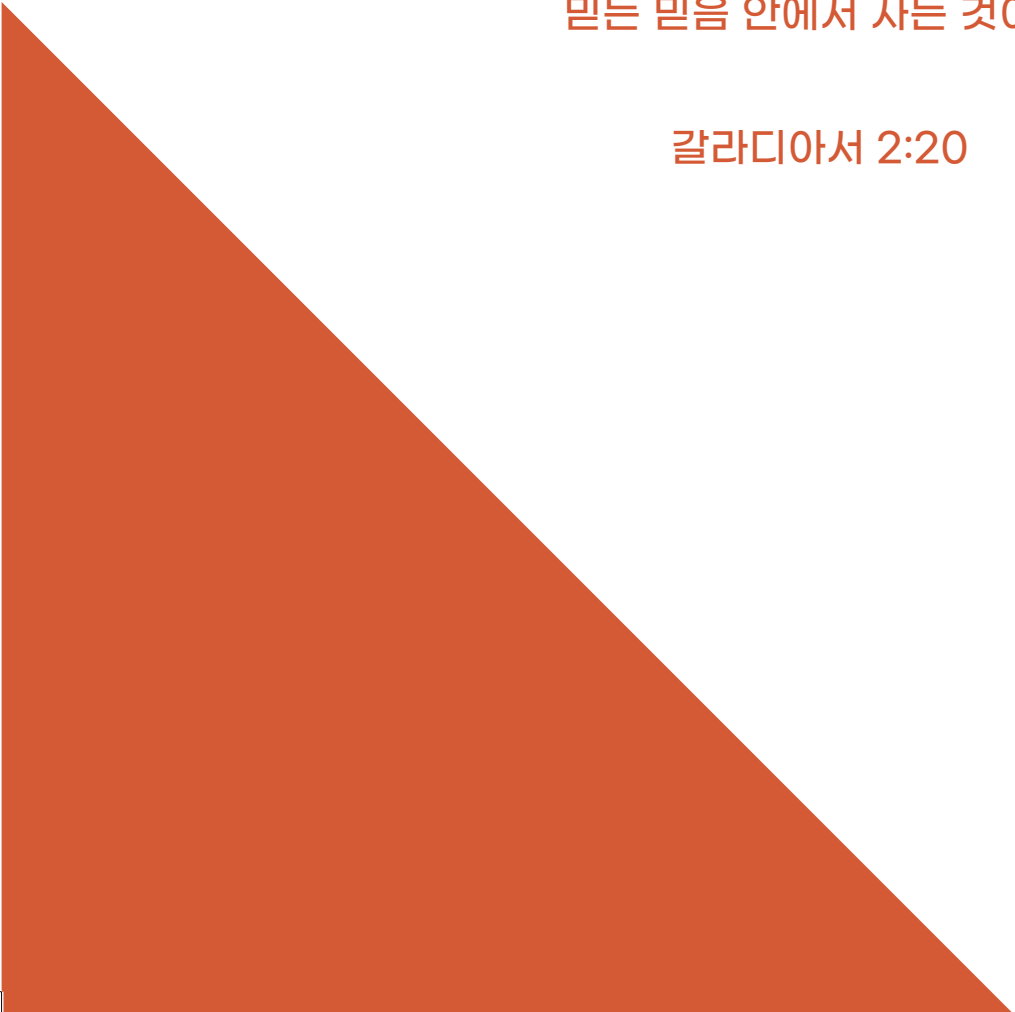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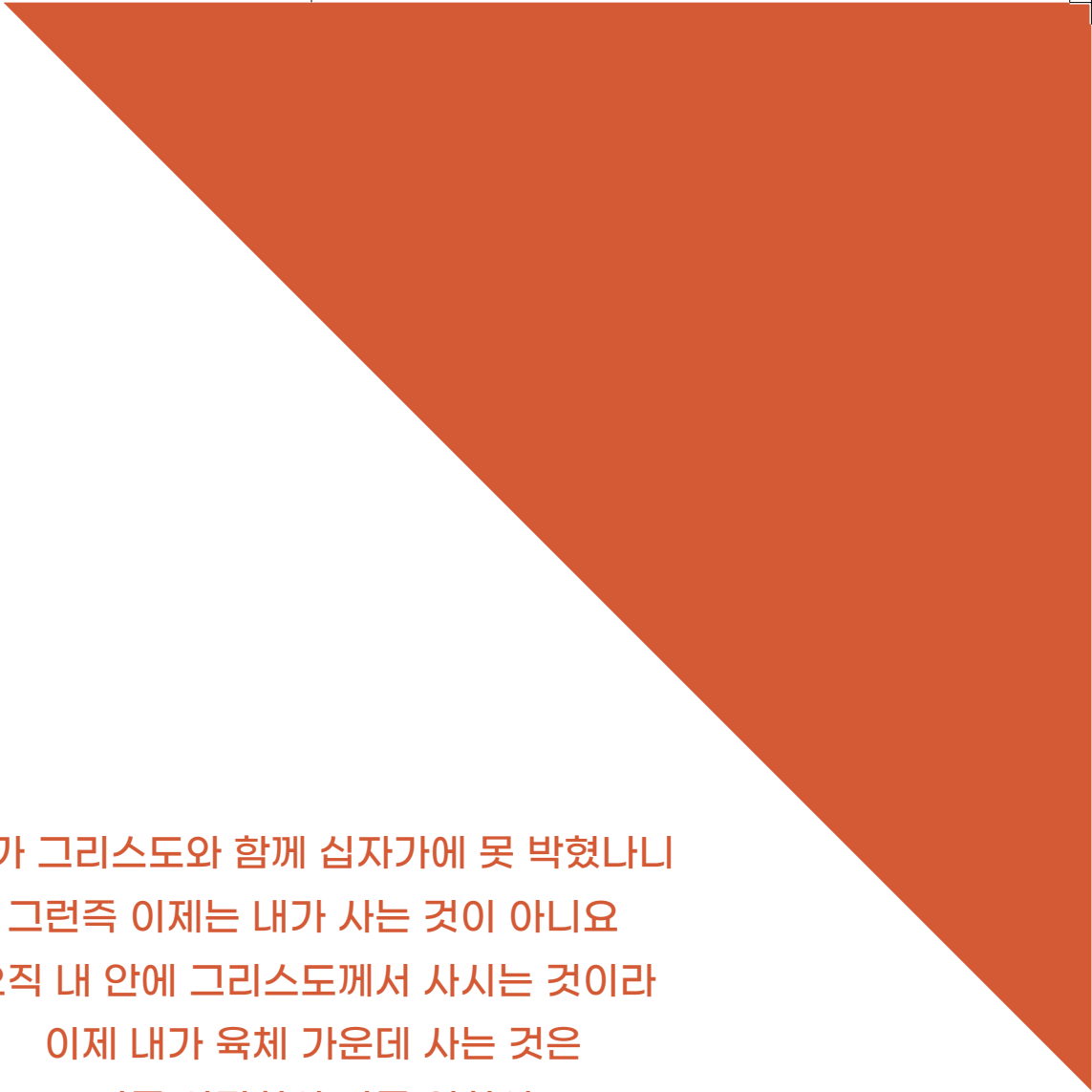
회복시키는 바리스타

-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다.
- 크리스천 카페를 설립하여 그 수익은 열방을 위해 사용한다.
- 영과 육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의 공간을 제공하여 준다.

—— 신앙 에세이

한 4년전만해도 뜨거웠던적이 있었다.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변의 시선따위 신경쓰지 않던 그런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기독교 대안학교를 꿈꾸던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뜨거운 마음은 식어갔고, 나이를 먹으며 점점 하나님이란 존재의 실존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독교대안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러했다. 은혜를 받은적이있다. 말로 설명할수없는 뜨거운 전율을 느낀적 또한 있다. 하지만 왜? 그마음이 오래 남지 못하는것이고 나의 결단은 쉽게 내려지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뜨거운 마음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라는 말을 하는사람이 많다. 하지만 왜 나는 그 감동을 느끼고 나서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것일까? 그이유는 간단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항상 주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야하고,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것인데, 그게 말처럼 되는게 아니었다.나는 중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나와서 매주마다 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 qt가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그저 당연히 해야하는 일과, 그저 매일 반복되는 루트가 되어버렸다. '은혜 받아봤자 뭐해? 어차피 3일가다가 다시 돌아설텐데, 어차피 다시 똑같은 죄 저지를텐데 회개해서 뭐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되었다. 그렇게 나는 처음 대안학교에 입학했을 때 느꼈던 은혜와 경험에서 점점 멀어지게되었고, 그 수준이 이제는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버린것 같다고 느꼈다. 드리미학교에 입학하기 하루전까지만 해도, 내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떨어진 먼지 한톨도 찾아볼수가 없었다.

드리미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이전에 도태된 나의 삶을 청산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위해 나를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아무리 해도 채워질수 없었다.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사경회라는 귀한 시간이 있었다. 선교사님께서는 호세아이야기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몸소 느끼게 해주셨다. 처음에는 내가 호세아의 입장이 되어 듣게 되었다. 고멜이 해도해도 너무하다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었다.하지만 듣다보니 점점 고멜과 나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우리에게 비유하시고 또 그 호세아의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비유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만 갔다. 그 과정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가르쳐주신것 같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것같이 나에게도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것 같았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수있었다. 무릎꿇은 바지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사랑이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나는 느낄수 있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것을 사명으로 주셨다. 앞으로의 삶에서 선행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길, 항상 낮은자리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자가 되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만큼 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정의 에세이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마음

정의. 이 하나의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하다. 또한 이 단어를 듣고 바로 정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할수있는 사람도 몇없을것 이다. 우리가 한달간 배워온 정의는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고있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 다른것일까? 우리는 여러가지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정의에 대해 알아왔고, 배워왔다. 내가 배워온 정의란 무엇일까에 대해 정리하고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우리는 먼저 세상에서 말하고있는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다. 도둑질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우리는 먼저 본인이 생각했을때 도둑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눠보았다. 나에게 도둑질이란 무엇인가를 물었을때, 한마디로 “이득을 취하고 양심을 버리는 것” 라고 대답하였다. 또 우리는 도둑질에 유혹을 받거나 도둑질을 하는 주변의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보았다. 몇년전, 횡단보도에서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린적이 있었다. 나는 주워서 그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잠시나마 안좋은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 지갑을 내가 안돌려준다고 해서 저사람이 알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라는것을 다시한번 되뇌이게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는 콜버그의도덕발달이론에 대해 공부하였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은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도덕적 가치 판단능력을 단계별로 나눈것이다. 1단계는‘처벌이 기준’인 단계 2단계는 ‘보상과 자신의 이득을 고려’하는 단계 3단계는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고려’하는 단계 4단계는 ‘법과 질서’를 고려하는 단계 5단계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고려하는 단계 6단계는 ‘스스로의 양심’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엄마를 도와 주려다 접시 10장을 깬 철수와, 엄마 몰래 과자를 먹으려다 접시 1장을 깬 영희가 있다. 이중 누가 더 큰 잘못을 한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했을때 단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영희를 선택한다고 한다. 스스로가 몇단계의 도덕발달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단계를 높여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스스로의 도덕발달 이론을 자가진단 해보고, 조금더 높은 도덕발달능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정의를 말하고있는 구절은 꽤나 많다. 그중 선생님께서는 시편 146:7-9절,에스겔 18:6-9절,신명기 15:1-11절,마태복음 11:4-5절,마태복음 19:16-22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주셨다.그중 가장 기억에 남은 말씀은 신명기의 이웃을 돕고 섬기라는 말씀과 마태복음의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에 대한 계명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 이 말씀 구절들을 읽고 떠오른 생각은 ‘사랑’ 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은 기본소양이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사랑,이웃사랑. 보통 이웃이라 함은 주변 친구들, 가족, 친척, 이웃주민 등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말씀하신 이웃은 이세상이라는 큰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힘든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정의. 어려운 말인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위해 그리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이 요구되는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낮은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나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것이 아닌, 일심동체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가야할 하나의 뱃지 같은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못하고, 아픔있는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전해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 정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할수있는 노력은 어떠한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정의를 지키기위해 할수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다. 먼저 세상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발달 능력을 가지고, 조금더 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야한다. 예를들어, 지나가다 떨어져있는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다른사람이 놓고간 물건을 되찾아준다던가 하는 일 말이다. 세상이 말하고있는 정의를 실천하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 되는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인 이웃사랑은 어떻게 실천하여야 할까?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배운대로 전하면 되는것이다. 하지만 그게 과연 쉬울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한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역을 위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한다. 나는 요즈음 식사를 하기전 기도를할때, 예수님이 내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않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섬기기위해서 묵상과 기도를 병행하며 삶을 예배로드리는 삶을 살아야하는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있다.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등이 있다. 받은것이 있다면 그 받은것을 나누는것. 그게 바로 정의가 아닐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것이다. 덧가와 목적없는 사랑. 이러한 사랑은 이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야하는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의이다.

나에게 있어 받아들여진 정의는 이정도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못들거나, 아예 참관하지 못한 수업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정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된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글을 쓰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 정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뇌이게 되는 시간도 가졌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때에, 항상 주님의 사랑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한다. 드리미학교에서 한달간 배운것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나의 대답은 "사랑" 일것이다. 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많이 고민한 내용도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학교에 있는동안 나에게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다. 그로인해 나에게서 사명이 생겼다. 나의 사명은 바로 사랑이다. 나는 아주 작고 작은 죄인일뿐이다. 당장 옆에앉아있는 친구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나는 항상 주님을 내마음속에 모시려고 노력하는것이다. "제마음속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안에 거하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의 고백이 생기길 원한다한다.

절제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항상 명심하라.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게 하라. 욕욕적인 본성에 굴복하는 자들은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된다. 욕욕에 몸을 맡긴 사람이나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 가 없다. 오직 믿음이 있는 영적인 사람에게만 평화가 찾아온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화평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찮고 사소한 일에도 금방 미혹되고 압도당하기 마련이다. 영혼이 나약하고 욕욕에 몰두하여 감각적인 것들에 빠진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종종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쉽게 분노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



절제하는 삶을 위한 나의 원칙

1. 어떤 일이든 세번 이상 생각하고 행한다.
 2. 항상 성경적 가치에 맞는 일인가를 인지한다.
 3. 말씀을 놓지 않고 묵상을 통해 절제를 배운다.
 4. 매사에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
 5.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것을 인지한다.
 6. 절제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인다.
- 

성결 에세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위해 꼭 갖춰야할 중요한 덕목은 여러가지가 있다. 저자는 이 글에 ‘성결’이라는 덕목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성경에서는 성결을 거룩하고 깨끗한것이라 말하고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성결하기를 바라실까? 그 이유는, 세상적인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할수 없기 때문이다. 성결이란 세상적인것과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말라 네가 선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볼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없을것이다.

하지만 성결은 절대로 쉬운것이 아니다. 우리는 왜 성결하기 어려울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오늘날의 사회는 많은것이 변해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다움을 중시 하던 휴머니즘의 시대가 지나고, 우리는 지금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살아가고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성경에 당당히 맞서는 사상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죽음,아픔,장애,고통 등을 부정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깨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윤리를 부정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있다 느껴진다. 오늘날의 인간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바벨탑을 재건하고 있다. 우리또한 이러한 사회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써보더라도, 밀폐된 신앙공동체에 자리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할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시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자세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결할수 없는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것은, 나의 삶이 나의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수있게 될것이다. 가위는 종이를 자르고, 연필은 종이를 채우듯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삶을 살면 되는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수 없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삶을 예배로

드릴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팔에 힘이 풀려 놓아버릴지 모른다. 하나님을 붙잡을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글을 쓰면서도 많은 회개함이 나에게 있었다.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한것일수도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나와 같이 살수 없을것이다. 평소에 잦은 욕설과, 언행으로 주변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순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던 순간들도 셀수없이 많이 있었다. 내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절대 이런 일을 행할수 없을것이다. 왜 나는 성결하지 못한것일까? 사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도 모른다. 아직 세상적인것을 너무나 사랑하고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나로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구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세상의것들이 너무나 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것 같다. 에세이를 쓰면서도, 머리에서 나오는 글들을 작성했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세기진 못한것 같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할수있는 기회가 있을까? 아직은 너무 달콤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것 같다. 최근에 읽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야 미래가 있다고 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것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은 언제나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막상 행하여지지 않는것이다. 아직 부족한것같다. 아직 정하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것 같다. 요즘은 많은 시간을 신앙에 대한 고민에 쏟고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고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인성결서약문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길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성에있어 진지한 태도로 임할것을 다짐합니다

어떤 유혹이 내게 있어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길 다짐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것이라는것을 항상 인지하며,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한 성적타락도 있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공동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위기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 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 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 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 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정하민

정직 에세이

정직한 자의 기도

주님 제가 기도문을 작성하기전 제 고백이 꾸며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를 정직함으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이시간 더욱 주님을 목상하고 주님의 자녀된 삶 살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정직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정직함에 대해 배울수 있었습니다. 정직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정직함 이라고 하면 그저 솔직한 대답과 솔직한 자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직함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이더라고요. 주님 왜 정직해야 할지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창권쌤이 슬퍼하시겠죠. 근데 전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안계신 분이라고는 생각 안해요.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알지만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정직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들은 말이 생각이 나요 주님. 하나님이 안계시다면 그저 안계신거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정말 그게 전부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 삶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주님. 다른 간증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을 들으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는 제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직함을 지켜행하는것이 저에게 큰 행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제 온전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스스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마음속에 거하시어 저를 정직할수있도록 하실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고 저를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사실 아직은 정직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주님을 잘 모르거든요.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앞에서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못하고 만나지 못하였는걸요. 제게 정직함을 주시고 정직함을 지켜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세요. 제 간증이 되어주세요. 제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확실히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해주세요. 제 삶의 최고가 되어주셔서 다른것을 눈에 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선교사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해주어 잠을 못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전 근데 아직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된다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싶어요. 저에게 그런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남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싶어요. 그게 정직함이잖아요.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아가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나 버리고

평화 에세이

평화의 공동체

평화란 무엇일까? 우리는 가치기초소양 시간중 3시간 밖에 평화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 어떤 가치는 3주에 걸쳐 배워왔지만 그마저도 내 가치로 만들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3시간이라니 정말 말도 안된다. 평화란 무엇일까?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 수업시간 탓에 평화를 수업시간에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에 틈만나면 평화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자기전에 이불속에서 평화를 고민하다 잠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다. 평화란 무엇일까? 선생님께서 평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책을 읽게 해주셨다. 그 책에서 말하는 평화는 “강요나 억압을 받지 않고 각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판단에 근거해 행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된다. 인권의 개념하고 비슷한 모습을 볼수있다. 갈통의 평화론에는 두가지 평화의 개념이 존재한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이다. 먼저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테러, 범죄등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두번째로 적극적 평화란 사회 구조나 문화,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 폭력 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쉽게말해 가난과 빈곤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적극적 평화가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바로 거룩한 신앙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한사람한사람이 같은 중심을 두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된다면 그 지체는 하나가 될것이고, 그 목자를 예수님으로 둔다면 바로 신앙공동체가 될수있는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백성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와 백성으로 일어서야한다. 드리미학교가 겹보기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짜여진 규정들로 평화로운 삶을 살고있는듯 하지만, 그건 그저 소극적 평화에 불과하다. 적극적 평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가치기초소양을 한학기동안 배우면서 느낀것이 한가지 있다. 가치기초소양에서 5가지의 가치들을 배웠지만 본질은 하나님 한분 이라는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렸을때 5가지의가치가 반짝일수 있는것이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주님이 안계시다면 절대로 그 5가지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한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드리미 학교 생활은 3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신앙 공동체속에서 살아갈 기회가 3년도 안남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앙공동체에서 성장한 나를 가지고 세상에 맞서는 사람이 되길원한다.



Peace

Peace is a concept of societal
friendship and harmony in the absence
of hostility and violence.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법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법을.

나는 배웠다.

공동체를 살아가는 지혜를

나는 배웠다.

하나님안에 자리잡은 신앙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법을.

나는 배웠다.

무너지지 않는 법을 .

나는 되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빛음 2단계를 마무리 하며..

빛음 2단계를 거치면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또 스스로를 잘알지못했던 부분을 알게 된 시간이 되었다. 건강한 자아상 수업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하고 살고있는지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게되었다. 그 수업을 통하여서 나는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명확해 졌고, 점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다. 또 성경적 자아 수업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자아를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도 알게되었다. TNTQ수업을 통해서 아직 길을 찾지 못한 내 미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바른길을 찾을수있는지도 배울수 있었다. 남의 필요를 채우는것은 직업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것을 알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앞세워 진로를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또 칭찬사전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칭찬을 가장 듣고싶어하는지 또 그 칭찬을 들었을때의 기분이 어떤지 전부 알게되었다. 칭찬사전을 통하여서 나 뿐만 아니라 다른친구들에 대해서도 알게되었다. 이친구가 어떤 칭찬을 가장 듣고싶어 하는지, 어떤 말에서 가장 사랑을 느끼는지도 알게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빛음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사람인지를 조금더 알게되는 시간이 될수있었다. 또 나는 아직 꿈을 찾지 못하였다. 꿈을 찾기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할것이다. 빛음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를 앞세워 나의 진로를 정할것이다. 또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것이 직업이라는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배운것들을 진로를 정할때에 잘 인용하여서 정할것이다. 조금이라도 내가 바른길로 나아갈수있는 칼피를 잡은것 같아 참 귀한 수업이라고 여겨진다.

3P 창의활동 계획서

활동명

실로암 합주실

개요

-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창의활동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이들을 뜻하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밴드를 형성하여 합주를 한다.

밴드에는 여러가지의 악기 조합이있지만, 대표적으로 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키보드 로 구성이 되어있다. 악기를 다룰줄 아는 사람 혹은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한다.

활동의 목적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또한 합주를 하면서 합을 맞추고 하나의 소리를 내며 공동체성을 배울수 있다. 개개인의 악기 실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처음 악기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찬양팀을 섬길수있을정도의 악기 실력을 갖게 될것이고, 그로인해 창의활동이 끝나더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악기로 영광을 돌릴수 있게 된다.

화성학

양상블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화성학 이론공부를 한다. 그로인해 합주를 이해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체험한다. 화성학 교제를 통해서 화성학을 공부할수 있다. 악기를 처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도, 화성학을 공부하면 합주를 더욱 이해하기 수월해 진다.

의미있는 청중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료 & 재료

악기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어쿠스틱)
드럼
키보드 (신디사이저, 피아노)

화성학 공부 교재.
일산오빠의 실용음악 기초이론 1 - 화성학

유튜브 자료

- 릭 강의 영상
- 합주 참고자료 (예배실황 영상 등등..)
- 잼 연습 도움자료

내용 및 활동

화성학

양상블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화성학 이론공부를 한다. 그로인해 합주를 이해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체험한다. 화성학 교제를 통해서 화성학을 공부할수 있다. 악기를 처음 다루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화성학을 공부하면 합주를 더욱 이해하기 수월해 진다.

매주 화성학 공부 교재를 통해 화성학을 공부한다. 화성학 공부를 어느정도 끝낸 후에는 합주를 위한 개별연습과 합주를 병행하며 곡을 완성한다.

TAKE IT ALL - LIVE IN MIAMI - Hillsong UNITED

위 링크(옆페이지 QR) 와 비슷한 느낌의 밴드 위주 찬양을 선정하여 곡을 연습한다.

또한 매주 실력 향상 그래프를 그리며 처음 시작했을때의 악기 실력과 14주의 창의활동이 끝난 뒤의 실력을 비교해보며 창의활동의 결과를 완성시킨다.

1주차

화성학 공부 - 음정

2주차

화성학 - 3화음

화성학 연습 및 곡선정

3~4주차

화성학-조성

개별연습과 합주의 병행

곡 하나 완성하기

5주차

화성학-음계

곡선정과 개별 맛보기 연습

6~8주차

화성학-다이아토닉 코드

개별 연습과 합주의 병행

로 곡 하나더 완성하기

9~10주차

화성학-7화음

곡선정과 연습으로 곡 완성

11~12주차

화성학-텐션 코드

거의 완벽하게 구현할수있는 3~4개의 곡 반복 연습

13~14주차

화성학-기초악전 및 마무리

3P페스티벌 공연 준비 및 실력 향상 그래프 완성으로 바인더 제작



문제 해결 프로젝트

팀원: 문혜령, 이지혜, 정하민

주제: 급식실 앞 맥북 수납함 설치

문제 개요

급식실 앞과 급식 상에 맥북과 가방이 식실 책무분별하게 놓여있다. 그로 인해서 급식실의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급식실 안으로 가방을 들고옴으로서 음식을 섭취하는 곳이 청결하지 못하며 먼지가 들어온다.

의미있는 청중

가방을 어디에 둘 지 모르는 학생, 가방이 굴러다님으로 맥북이 파손된 학생, 먼지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학생과 선생님, 어수선했던 환경을 보는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

1. 급식실 의자는 모퉁이가 둥글어서 가방을 걸어두면 흘러내린다.
즉 의자에 가방을 걸어둘 수 없다.
2. 급식실 책상에 가방을 두면 먼지가 쌓이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3. 급식실 바닥에 가방을 두게되면 오가는 길에 걸릴 수도 있으며
의자와 의자 간의 간격이 좁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4. 급식실 안에 있는 책상이 꽉차면 급식실 외부 바닥에 놓아두어 출입구 바로 앞이 더러워진다.

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 급식실 앞에 가방보관함을 설치한다.
- 급식실 앞에 락커를 설치한다.
- 급식실 안에 있는 책상을 급식실 밖으로 옮긴다.
- 급식실 밖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기존 책상의 수량보다 늘린다.

문제 해결 방법 정리

급식실 외부에 가방보관함을 설치한다. 책상처럼 칸이 없는 가방보관함을 설치한다면 분실물함이 나 잡동사니함이 될 수도 있으므로 칸막이로 막아둔, 가방을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방보관함을 설치한다. 그래서 어수선하고 청결하지 못한 급식실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미관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액션 플랜

1. 급식실 외부에 있는 빈 공간의 길이와 넓이를 측정한다.
2. 여러 가방보관함을 알아보며 가장 최적한 가방보관함을 주문한다.
3. 가방보관함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알린다.
4. 학생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책임감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분실물센터나 잡동사니 보관함이 되지 않도록 강조한다. 또한 두고 가는 물건은 폐기처분한다고 미리 이야기한다.
5. 가방보관함 관리자를 설치하여 매일 저녁식사 이후 청결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6. 그 과정에서 밤까지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이나 잡동사니들은 모두 폐기처분한다.

역할 분담

가방보관함 관리자 - 매일 저녁식사 이후 식당 일정이 없을 때 가방보관함을 점검하고 늘어져있는 물건들을 폐기처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어셈블리에 공지하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

가방보관함 주문자 - 급식실 앞 공간의 넓이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가방보관함을 알아보며 주문한다.

정보원 - 설문을 통하여 우리학교 학생의 가방 길이나 가방의 종류를 설문하여 여러 정보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가방보관함 설치 이후에도 만족도나 청결도 등을 설문하며 유지에 힘쓰는 역할을 한다.

책임있는 학생 - 모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